전법 일기

"佛法 만나 감사" 장병 반응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불교의 인연은 모태신앙으로 맺어졌다. 그 인연으로 지금 스님이 되어 젊은 청년 장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법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창시절, 대전에 있는 불교종립학교인 보문중·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 '파라미타'라는 청소년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포교활동에 애착이 갔다. 대학교도 동국대에서 불교학 전공을 하면서 전법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부산에 있는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맡아 활동을 하면서, 동련에서 진행하는 불교교사대학도 졸업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복수전공으로 종교(불교) 교원 자격까지 취득하는 등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준비했었던 것 같다.

내가 군포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교법사 선생님의 소개였다. 그래서 대학교를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출가까지 하게 된 계기였다. 또 내면의 깊은 곳에 스며있었던 목마름이라고 할까?

대학생 시절, 불교 전법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때에 젊은이들에게 젊은 불교, 접하기 쉬운 불교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불교라고 하면 고리타분한, 접근하기 힘든, 어르신들만 믿는 그런 생각에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군종법사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지금 이 순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필자의 군종전법일기를 4편에 걸쳐 들려드리고자 한다.

군승이라면 부대장병과 함께 어울려 그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함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용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기위해 병영생활을 자처해 다녀왔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 졸업 후 고창 선운사로 출가하여 어느덧 8년차 군종법사 소임을 맡고 있다. 어느 날 한 용사가 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법사님, 군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마다 스스로 좌절하고 군에 입대한 자신에 대해 회의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한 동기와 함께 법당에 와서 법회에 참석하면서 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없었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갈등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법회를 참석할 때마다 불교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용사의 피드백은 군전법활동을 하면서 내게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요즘 MZ세대 불자 장병의 관점에서 발맞추어 나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종종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⑧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3)

좋은 이별은 성장을 가져온다

오늘은 '상실'과 '애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얻은 23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도 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알아서 척척 기저귀를 가져오고, 콧물을 닦아줄라 치면 어느새 달려가 티슈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기가 떼를 쓰기 시작하면 3시간 넘게 발악을 합니다. 요구르트를 더 달라고 허리를 거꾸로 활처럼 휘고 온몸을 꼬아대며 바닥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쉬지 않고 떼쓰며 울어대는 통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땀범벅이 됩니다. 더 서글프고 간절하게 보이려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고 아이를 달래며 먹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기는 결국 저와 타협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슬며시 손을 잡고 거실로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일주일에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강렬한 본능만 가진 아기는 자신의 욕구가 좌절됐을 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노여워하고 또 슬퍼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에 압도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기의 감정을 안아주고 견뎌주며, 아기의 극렬한 공격성에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려주기를 반복하면, 아기는 '사랑의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노가 분노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된 사랑으로 돌아오는 마법을 통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내재화합니다. 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게 잘 해결돼 곧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동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실을 잘 승화해 자기 확장 기회로
'모든 것이 변한다' 위력을 체험하면
사랑의 슬픔은 삶의 안목으로 전환

신데렐라 동화를 보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엄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자랍니다. 동화는 대부분 계모가 등장하고, 주인공은 늘 셋째 딸, 셋째 아들로 언니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동화는 왜 그렇게 늘 계모와 못된 언니, 형들만 있는 걸까요? 동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전해줍니다. 자기의 욕구에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던 양육자들이 서서히 사회의 규칙을 알려주고 욕구를 통제할 때 아기는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때 '엄마, 아빠, 나'의 삼자관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나는 셋째 딸, 셋째 아들로 대변되며,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엄마는 꼭 계모처럼 느껴집니다. 늘 즉각적인 만족을 주던 좋은 엄마는 죽어서 나무가 되었고,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피해 나무를 찾아가 하소연을 하며 좋은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상실에 대한 '애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깃든 흰 새가 모래흙에 섞인 콩을 골라내는 것처럼 분별력으로 어려움을 풀어가고, 호박과 쥐와 헌 신발을 마차와 마부, 유리구두로 변하게 하는 마법처럼 아이들은 날것의 욕망을 세상에 수용할 만한 더 좋은 것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애도 이후에 얻게 된 성장의 힘입니다. 이러한 마음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대상 상실의 경험에서 분노와 슬픔의 매몰이 아닌 더 넓은 자기의 확장으로 애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통을 담아내고 견뎌내며 성숙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것 없이 변해갈 뿐이라는 위력을 체험합니다. 마법처럼 사랑의 슬픔을 삶의 안목으로 전환합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사찰을 '청년 마음의 집'으로

얼마 전 자주 다니던 한 사찰청년회에 참석했다. 법회를 마치고 오랜만에 스님과 법우들이 마주 앉아 차담 시간을 가졌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도 잠시, 법우들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취직, 부모님·연인과의 갈등, 불투명한 미래 등 어느 하나 가벼운 주제는 없었다.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한 법우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어디 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절에 와서 다 말하니 속은 시원하네요." 누구도 속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지만, 함께 고민을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된 경험을 한 것이다.

지난 9월 1일은 홍대선원 2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던 날이다. 공양부터 행사 기획까지 곳곳에 청년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앞으로 홍대선원이 어떤 곳이 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주지 준한 스님은 "청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올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향한 청년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요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는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가수 이하이의 '한숨' 중 일부다. 어떻게 보면 저 가사에는 불교가 현대사회 청년들에게 취해야 할 자세가 담겼다. 바로 '자비(慈悲)'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힘든 청년의 깊이 모를 한숨에 말없이 다가가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사찰이라는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불교 사찰은 청년들이 한숨을 편히 내쉴 수 있는 '마음의 집'이 돼야 한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